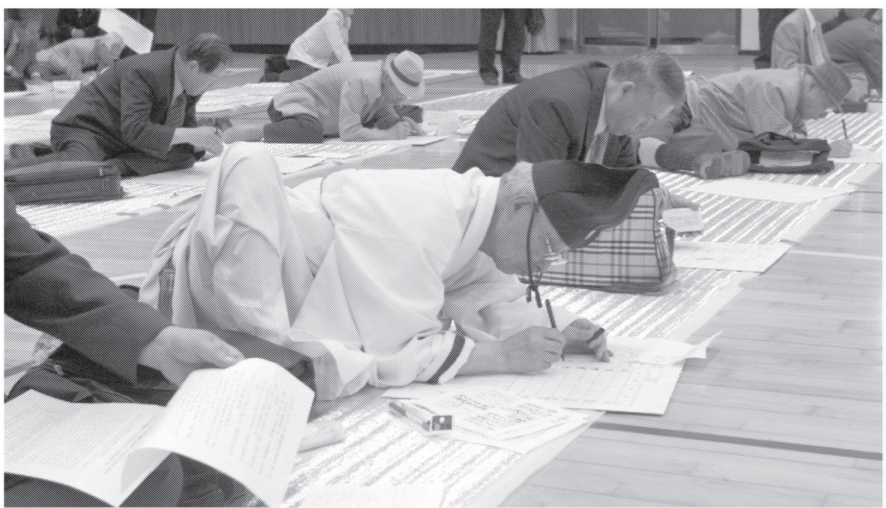


이서구 선생 추모 한시백일장 개최 전국 유림 및 한시 애호가 200여명 참석



한시4대가인 낙서(洛瑞) 이서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가 4월30일 한시 애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시백일장은 포천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이서구 선생 자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행은 칠언율시, 압운은 眞, 倫, 民, 新, 彬 으로 했으며 고선시관은 사계권위자를 추후에 심사하며, 전국의 유림 및 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문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회결과 입상자는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0명, 가자 10명 등 26명이 입상했다. 제출된 작품을 심사한 결과 장원은 대구에서 참여한 임종숙씨가 차지해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또 서울의 정규창씨와 전주의 이창기

씨는 차상을 차지해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상금 30만원이 지급되는 차하는 경북 김진선, 대구 이창우, 대구 안재대씨 등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서구 선생은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출신으로 본관 전주(全州), 자는 낙서(洛瑞), 호 작재, 강산(曠山), 177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관(史官)·지평을 거쳐 승지 대사간, 이조판서, 대사헌, 우의정 등을 역임했다. 왕명으로 (장릉지(莊陵誌) 춘추(春秋), 정조실록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명문장가로서 특히 시명(詩名)이 높아 박재가(朴齊家)·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과 함께 한시(漢詩)의 4대가로 알려졌으며, 오언고시(五言古詩)에 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승만 기자 forme64@paran.com

피아니스트 브라이언 크레인 공연 16일 오후 7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영화, 드라마, CF 배경음악 등으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피아노 연주자 브라이언 크레인이 16일 19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특별 내한공연을 갖는다.

'버터플라이 왈츠' '노던 라이트' '어 워크 인 더 포레스트' 등 그의 연주는 듣는 이로 하여금 명상과 편안함에 젖어들게 한다.

할리우드 태생의 브라이언 크레인은 자연스런 삶 속에서 느껴지는 순간의 감정들을 담아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해주고 있으며 새로운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그의 콘서트에서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 온 첼리스트인 데이비드 제임스 힌트와 함께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승만 기자 forme6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00

그래도 그대들은 훗날에 할말이 있겠는가?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광해군 때 이이첨은 일해군(德海君)과 영창대군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정은은 사간원에 있으면서 이를 극구 반대하였다. 어느 날 정은이 이이첨에게 말했다.

"철모르는 어린이가 어찌 반역을 꾀한단 말인가? 듣건대 대비께서는 밤낮으로 울며이며 어린 아들과 함께 죽지 못할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만일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그대들은 훗날에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자 이이첨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꾸했다.

"대비를 함께 폐위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이첨이 화를 내며 일어섰다. 하지만 정은이 웃으며 말했다. "일어설 것 없소. 내가 곧 갈 것이요." 이후 정은은 이이첨과 절교하였다.

그는 임금께 여러 번 간하여 하였으나 간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바람에 좀체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를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힘쓸지이다. 이 늙은 어미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말거라."

이윽고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위리안치(幽閉安置)하고 부사 정항(鄭沆)을 시켜 물레 살해하였다. 이에 정은은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려 결연히 주장하였다.

"어린이는 실상 반역을 모인 사실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한낱 힘쓰는 무부(武夫)의 손을 빌려 대군을 죽였습니디. 만일 영창대군을 살해한 강화부사 정항을 죽이지 않으면 전하께서는 선왕들의 묘 앞에 설 면목이 없을 것일니디."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하려 할 때도 그는 극구 반대하였다. 광해군은 노하여 그를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다. 그는 10년 동안 가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스스로 '고고자(鼓鼓子)'라 칭하고는 글을 지으며 세월을 보냈다.

그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귀양을 마치고 돌아갈 때 동행하였다. 그는 첩을 사랑하여 남원부사가 되었을 때도 여염집에 감추어 두고 부인에게는 매년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물레 만났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공께서는 이이첨같이 흉악한 무리가 위세를 떨칠 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찌 집에 있는 부인을 두려워하시나이까?"

그러자 정은은 허허 웃으며 답하였다. "이이첨같은 무리야 죽이면 그만이지만, 마누라는 그럴 수도 없고 하루종일 나를 못살게 구니 참으로 두렵다네."

이후 인조가 즉위하고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그때 정은은 임금을 모시고 여러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했다. 위나 상황이 급박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조정 관원들이 걸어서 임금의 뒤를 따랐고, 더러는 남한산성으로 가는 도중에 도망치고 말았다.

이때 장수 신경진(申敬?)이 병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지나다가 정은을 바라보고 외쳤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일까요? 공은 대신인데 어찌 한마디 말로써 백성들을 안정시키지 못하오?"

정은은 신경진에게 사과한 후 웃으며 말했다.

면서 말했다.

"공은 용맹한 군사를 수천 명이나 거느렸는데, 적은 쳐부수고 않고 그 군사들을 무엇에 쓰려고 하시오?"

이윽고 강화도가 함락되고 왕실의 가족들이 잡혀가자 최명길은 청나라 장수를 찾아가 항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은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나라가 망한다 해도 임금으로서 오랑캐에 항복하는 것은 수치지." 그러면서 정은은 스스로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찔렀다. 칼날이 뱃속까지 들어갔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정은은 그 고개를 쳐들고 부르짖었다.

"최명길! 전하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였으니, 오랑캐는 분명 조선의 육새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후 그는 덕유산 골짜기로 들어가 초가집을 짓고 조를 심어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숲 속에 은거하면서 해가 바뀌어도 청나라의 달력을 쓰지 않았고, 새옷과 발걸음 짙은 새 옷을 거부하였다.

정은 (鄭 尊) 1609년(선조 2)~1641년(인조 19). 본관은 초계(朝峴)이며 자는 휘원(輝源), 호는 동계(桐峴) 또는 고고자(鼓鼓子)이다. 1601년(선조 30) 진사가 되고,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임해군 즉위와 영창대군 피살, 그리고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에서 10년 동안 학문에 전념하다가 인조반란이 성공한 후 대사간, 대제학, 이조참판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지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이조참판으로 최명길(崔鳴吉) 등의 회의 주장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후 관직을 버리고 덕유산으로 들어가 조(蓐)를 심어 생계를 잇다가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TV의 일반화와 스튜디오 시스템 뮤지컬 영화의 쇠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수예술은 대중적이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인 면에서 항상 홀로 서기를 해왔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를 구하며는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고 새로운 양식의 공연예술이나 상업성이 높은 매체가 생겨나면 그나마 도움을 주었던 투자자들도 곧바로 방향을 선회하곤 했다. 19세기에 가장 대중적이며 흥행성을 갖춘 멜로드라마(Melodrama)도 19세기 말에 영화가 생겨나면서 결국 쇠퇴의 길을 걸었고 1930년대는 경제공황으로 많은 순수예술 종사자들이 할리우드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브로드웨이는 몇몇 작곡가와 제작자들의 살신성인이 많은 돈을 유지할 정도였지만 주요 영화사들은 항상 발 빠른 행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부를 축적해 갔다.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번성기를 누렸다. 제작, 배급, 마케팅에 서부터 상업에 이르기까지 영화산업의 핵심 분야를 장악했으며 한편으로는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스튜디오 시스템도 1947년 이후부터는 일반화된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데 특히 뮤지컬은 질적인 면에서나 작품 수에서 하강곡선을 걷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화의 마케팅도 변했다. 스튜디오의 변화와 관객 수의 급감, 그

리고 관객들의 여가활동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요즘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영화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극장들은 아외나 소풍을 근처로 자리를 이동했으며 자동차 극장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TV의 급속한 대중화와 함께 TV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때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몇몇 회사들이 1930년대부터 라디오 및 TV방송국을 사들이고 있었다. 급부상하고 있는 TV를 방치하고 있다가는 영화사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영화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TV 시장에 진출을 꾀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가 영화사들이 TV 매체까지 장악하려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소송을 벌여 결국 1950년부터 TV시장에 진출했으며 컬럼비아 영화사도 다음해에 뒤를 따랐고 대부분의 영화사들도 TV 시장에 올인 했다. 이에 많은 영화 기술자들과 배우들도 TV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TV를 소유한 영화사들은 자체적으로 TV용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극장에 자주 가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할리우드 영화를 매주 TV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TV매체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수익성

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영화사들은 더욱 TV의 기술발전과 작품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1950년대 이후부터 영화산업은 TV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비싼 자체제작을 자제하고 영화프로젝트별로 독립제작자들을 기용했고 남은 인력을 배급 쪽으로 집중했다. 즉 소형제작자들이 작품을 만들어 대형스튜디오에 영화사들에게 완제품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대형스튜디오들이 제작에서 손을 떼고 영화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10대와 20대를 겨냥한 공상과학물이나 로큰롤 영화가 붐을 이루었다.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나 감성적 즐거이는 기피했고 폭력과 섹스를 다룬 작품들이 성행했으며 미국 내의 좁은 시장을 탈피하여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화사들의 영화배급 집권과 제동을 걸었다. 이에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소송을 벌여 결국 1950년부터 TV시장에 진출했으며 컬럼비아 영화사도 다음해에 뒤를 따랐고 대부분의 영화사들도 TV 시장에 올인 했다. 이에 많은 영화 기술자들과 배우들도 TV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TV를 소유한 영화사들은 자체적으로 TV용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극장에 자주 가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할리우드 영화를 매주 TV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TV매체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수익성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지저귀는 새는 악보가 없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동지를 틀어 내는 바람과도 짐을 짓는다. '날아다니는 보석' 물장미라는 나뭇가지에서 짙짙기를 한다.

모든 생명은 어디서나 소중하다. 그럼에도 어떤 생명이 살고 어떤 생명이 죽어야 하는지를 인간 스스로가 정해 놓고 오만한 말을 지어내는 것은 불행한 사회 계약이다.

동물이 자연대로 살아감은 인간은 깊이 통찰해야 한다. 지금 '오월의 여왕' 싸이퍼가 꽃이 힘을 뚫어 핀다. 인간의 시인 위드워드는 종다리를 '천상의 시인'이라 했다. 빠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덩으로 새끼를 키운다. 비교하고 계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자연이고 신에 대한 순종이며 섭리에 대한 복종이다.

생각해 보면 비유론에 살아가는 풀이 얼마나 경이롭고 대단한가. 그러나 자연 속에도 오묘한 섭리와 아름다운 질서의 생존적 계급이 존재한다. 인간 불타는 별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불과 모든 생명은 4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간파했다.

다행히도 이 땅에 죽어 가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이어져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끈끈한 사랑을 먼저 해야 한다.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친근한 대상이다.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생명과 물질구 치고 불활기를

관절기해 해야 함이다. 하늘에 떠 있는 새의 날개를 보라. 얼마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조용히 떠 받치고 있는가를. 사력을 다해 날아가는 새가 날개를 부딪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새끼 길을 가기 때문이 아니다.

왜 인간은 삶과 삶을 섞어 생명을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삶과 삶을 섞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피를 나눈 인간의 본성에는 원리가 있어선가. 야근어 어디에 근원을 둔 선과 악이란 말인가. 죄와 벌이란 것인가. 인간은 물론 죄를 짓기까지 자아 성찰을 통하여 죄에 씩을 잘라야 함이 옳은가. 사람을 받아야 하겠는가.

소속새 소리는 슬프고 까치소리가 반갑게 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새소리의 악보는 이미 인간의 가슴에 저장된 것이 아닌가. 인간의 귀는 나팔이다. 입을 통하여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귀를 통하여 듣는 소리가 더 깊고 멀리 간다.

사월의 마지막 날 흙으로 돌아간 한국의 큰 시인 정공재님은 그의 마지막 시 '고별사'에서 인간은 두 번 운다고 했다.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죽을 때 또 한 번 운다고 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사방한다. 한마디 말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인간의 입과 생각으로 부르는 노래는 악보로 그려낼 수 있지만 눈에서 흐르는 눈물 소리는 악보가 없다. 절규하여 피는 꽃의 향기 역시도 악보가 없다. 어떤 면에서 악보는 상상의

문이다. 인간의 타락한 상상력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악보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구속되는 것이다. 만물과 얽히고 얽고 닫고 하는 문은 반드시 경계와 울타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운동장의 트랙을 따라 사람은 두 팔을 벌려 달리지만 그 역시 운동장에 갇힌 것이며 선에 묶이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에는 물리적 구속과 정신적 구속이 있음이 그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대문을 열쇠로 채우는 것도 구속이지만 '일찍 들어와'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구속이 된다. 때로는 악보 없는 인간의 소리가 공포와 두려움의 공해가 될 때도 있다. 또한 아내의 바가지 끊는 소리가 악보가 없듯이 동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악보가 없다.

동물(생명)의 소리(언어)가 그러하듯 진정한 생명의 예술이란 약속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이며 생각의 부화인 것이다. 어쩌면 무지개의 인양일수도 있다. 나뭇잎이 바람과 노래하며 춤추며 우는 일이 그러함이다. 바로 인간의 악보는 파라다이스(낙원)를 찾아가는 길에 인간이 놓는 철길에 불과하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4)

「오성대감(鰲城大監)」과 「기자현(奇自獻)」

영의정에서 파직된 '기자현'대감이 일찍 파직을 위해 여염집에 결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당대의 청백리(淸白吏)였던 「오성대감」이 그를 위로하려고 그의 결방살이 단칸방을 찾았다.

「기자현」은 「오성」을 반가이 맞으면서 "우리가 비몽사 처첩이 단칸방을 쓰고 있자니 구차하기 짝이 없소 그려" 하고 그의 단칸방으로 안내하여 잠시나마 회포를 풀었다.

오성대감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다음과 같은 시 한수를 지어 기자현에게 보냈다고 한다.

「기자현」대감께 「춤도 덩치도 아니한 2월이라 하늘이라 쳐 하나 첩하나 어이 그리 정다운고. 원앙근친 위엔 머리 셋이 나란히 비취 이불 속에는 여섯 팔이 얽혔구나. 입을 열어 웃으면 장님히도 품(品)자가 되고 몸을 비켜 누누니 천(仙)자가 흡사하다. 동쪽 끝에서 벌리면 서쪽에서 안달이라.

이 시가 널리 퍼져 한때 사람들의 화제에 올랐으며 「오성대감」의 형용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포천의 상징 로고가 오성과 한음이 아니던가?)

우리 선조들의 적라(赤裸)한 생활과 의식의 결정체인 해학(諧謔)은 현대인에게 때로는 충고가 되기도 하고 해독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풍토와 전통의 표현인 우리의 해학은 「은은한 은(隱)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고향 포천에는 모이는 장소마다 좌중을 웃기고 화제를 주도하고 흰소리로 신바람 나는 삶을 풍자하여 80평생을 사셨던 신복면 심곡리(기파울) 김생원님이 매우 유명하셨는데 평소 주객(酒客)을 모아 놓고 즐기는 발가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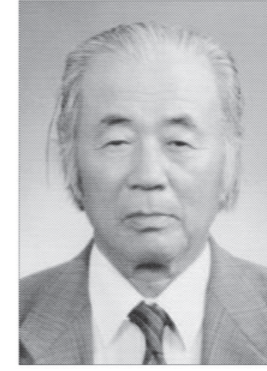
미셨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조장도 만들고 술정(술 도매상)도 만들어 기운이 머물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였다. 이는 유머하다. 「웃음과 유머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난다. 내 고향 포천에도 오성과 같은 해학 시인은 요즈음 없을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반가운 정담이나 농담 한마디 할 줄 모르다던 어찌 벗이라 하겠는가? 국제 외교에도 겸손식에도 하물며 조의(弔意)를 표하는 곳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은 은근한 유머를 잃지 않았다.

막강한 중국 대륙의 국력과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외교관들의 해학미 넘치는 문장과 언변 때문 면 심곡리(기파울) 김생원님이 매우 유명하셨는데 평소 주객(酒客)을 모아 놓고 즐기는 발가 취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追慕惕齋李書九先生(추모척재이서구)



先生稟性道心眞 (선생秉性道心眞) 清白生涯五倫 (淸白生涯五倫) (청백생애천오륜) 선생의 타고난 성품은 도심이 참되시니 청백한 선생의 생애는 오륜을 천명하셨네

登仕虞然忠祖國 (등사유연충조국) 處身溫裕濟黎民 (처신온유제黎民) (처신온유제려민) 벼슬길에 나가서는 조국에 충성을 다하시고 처신은 따뜻하고 넉넉하며 많은 서민을 구제하셨네

正論義氣千年耀 (정론의기천년요) 訓育師風萬歲新 (훈育사풍만세신) (훈육사풍만세신) 바른 이론과 옳은 기상은 천년토록 빛나고 후진을 가르치신 선생의 풍토는 만세까지 새롭기만 하네

抄啓文臣靑史錄 (초개문신청사록) 編思偉蹟永彬彬 (변사위적영彬彬) (변사위적영빈빈) 초개의 문신으로 청사에 기록되시니 선생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히 빛나고 빛나리라

楊載昌
前 포천향교 전교